

## “이삭이 태어나다”

창21:1-7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길을 모르며 무조건 떠나, 지시하는 땅인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곳은 기근으로 인해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긴 적도 있고 아비멜렉에게 신부대금을 받고 시집까지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까스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자손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80-90 이 되어 자식을 보겠다고 이름까지 바꾸어 부르게 하니 주위로부터 온갖 비웃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25년이 지난 후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 1. 범사는 때가 되어야 한다.

**“(창 21:2)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습니다. 기한에 미쳐 즉 기한이 차야 합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 3:1)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생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바로 “때”와 “목적”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때 안에서만 살아야 하며, 그 동안 주어진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운동경기와 비슷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진리를 발견하고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인생의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삶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이라 인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이며, 두 번 국무장관을 지낸 다니엘 웹스터는 연설 가운데서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야”**라는 말을 했습니다.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지 굳어지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도 썰물 때와 밀물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부들이 썰물과 밀물의 때를 알기 위해서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밀려 나갔다가 물이 쓸어 들어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항상 하늘의 달을 쳐다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에 민감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성공하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난 다음에 현실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하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 2. 불가능은 없다.

백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롬 4:17-18)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기독교란 한 마디로 정의 한다면 기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천년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기적이요, 그 사실을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믿지 못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100세에 아이를 낳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영혼 속에서 일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수 없는 막힌 길을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게 하십니다. 흥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랬습니다. 요단강의 물길이 그치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온통 기적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 3. 일상의 모든 시간과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간이 다 지난 후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임신기간을 다 채우고 태어났습니다.

한달이나 석달 만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잉태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출산과 성장과정은 모두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간혹 일부 사람들<sup>o</sup>른 신앙을 정상적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신비의 영역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세계 안에는 정상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자연질서를 사용해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정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상식이 없어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도피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신비한 일입니다. 설명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 4.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창 21:1)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늙어서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권고하셨다’란 말의 뜻이 찾아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변화를 주어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늙은 나이에 낳은 아들은 말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 23:1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수 있는 딱 한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롬 4:18-21)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갈리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청춘도 돈과 명예도 믿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풀이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곧 시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 5.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창 21:6)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 잡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웃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구원 받을 때 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예수 믿고 기절하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절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카피 라이터로서 뒤늦은 나이에 중생한 경험한 이만재씨는 거듭나고 난 뒤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참 별 희한한일도 다 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 않아 지 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 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 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을 대신해 예수님 사랑해요 어찌고 응얼거리며 이미 이세상의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번도 본일이 없는 만나라 목수간 집내 탈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강박하게 사는 이유는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진짜 신앙인양 착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는 절대 비참해 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진들이요 둘째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나에게는 지루한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결국에는) 최선의 시기였음을 고백하였던 경우를 서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믿음과 썰물의 때를 알기 위해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달을 주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므로,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경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최선을 다하는 일상 속에 부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 속에서 일상의 패턴을 무시한 믿음만을 강조했던 잘못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이번 ‘재정 부흥회’와 ‘영적지도력세미나’를 통하여 은혜 받은 것과 결단한 것들 중에 **실천 중인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